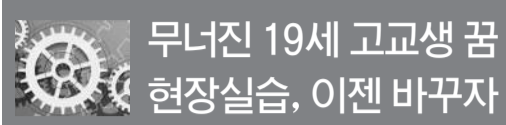


취업률 목매 안전 도외시... 끊이지않는 현장실습 잔혹사



〈상〉위험지대 내몰린 직업계고 학생
15살 소년 수는 중독 사망사건
고속도로 현장정리 중 사고사 등
사고→제도 강화 악순환 되풀이
교육당국·산업현장은 안전 불감

여수 해양과학고 3학년생인 홍정우군의 꿈은 '선장'이었다. 자신의 요트에 손님을 태우고 바다로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느라 거의 매일 밤 10시 현장실습업체를 나서는 초과 근무도 버텼다. 특성화고 해양제학과를 선택한 것도, 요트업체 현장실습생으로 간 것도 자신의 꿈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홍군은 꿈을 키워 가지 못했다. 어른들은 스무살도 안된 옛된 고교생을 위험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았고 지켜주지 못했다. 제주 생수 공장을 다니던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 습진 3년 전, 안전장비도 없이 여수 연구소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을 하던 광주 모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추락사한 16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광주일보 '직업계고 고교생 꿈 짓밟는 현장실습 이대론 안된다'는 기획 시리즈에 이어 어린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환경의 문제점과 조속한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담은 '무너진 19세 고교생 꿈, 현장실습 이젠 바꾸자' 기획물을 게재한다.

24일 오전 여수시 소라면 추모공간에서 현장실습 중 습진 홍정우 군의 49재가 열렸다. 홍군은 지난달 6일 현장실습을 나간 요트에서 따개비를 따다 숨졌다.

49재는 고인이 습진 뒤 7일마다 7회에 걸쳐 재(齎)를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불교식 의식이지만, 묵념과 추모사, 헌화 등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은 살아 있었다면 19살 생일을 맞는 날이었다. 가족들은 묘비 앞에 작은 생일 케이크를 올렸다. 홍군의 어머니는 49재가 끝난 뒤 묘비 앞에서 "케이크를 먹고 가"라며 오열했다.

홍군의 친구는 "아직도 믿기지 않고, 지금도 (정운이) 너 이름을 부르며 곁으로 달려올 것 같다"는 추모글을 읽었다. "너는 지금 좋은 곳에서 미소 짓고 있겠지만, 나는 너처럼 행복하게 웃기 힘들다"고 했다.

홍군의 49재는 어린 학생의 꿈을 지켜주지 못한 죄스러움과 홍군같은 어린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장 사고가 지난 1988년 이후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데, 정부의 안전 대책도 '임시방편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홍군 죽음을 계기로 여수에서 열린 '여수 직업계고의 학교교육정상화와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안' 토론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홍군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시민단체 주도로 특성화고의 안전한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제도를 바꿀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끊이지 않았던 잔혹한 어린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고 사례가

■ 현장실습 잔혹사

일시	개요
1988년 7월	온도계공장 15세 소년 노동자 수은중독 사망. 한국 산업재해 추방 운동의 효시.
1997년 10월	호남고속도로 광주 문흥지구 지하도로 확장공사 목포공고 현장실습학생 현장 정리 중 차에 치여 사망.
2005년 11월	여수 한 연구소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 광주송신공고 현장실습학생 안전 장비 지급 없이 작업중 추락사.
2011년 12월	기아차광주공장 영광실고 현장실습학생 유해 페인트 도색작업장에서 쓰러져 뇌사.
2012년 12월	울산신항만공사 협력업체 현장실습학생(순천효산고) 작업선 전복 사고로 익사.
2017년 1월	여수산단 협력업체 현장실습학생 과중한 업무와 상급자의 폭언 등으로 극단적 선택.
2017년 11월	제주생수 공장 현장실습학생 고 이민호 군이 적재기에 눌러 사망.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도입되는 계기.

〈전남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이규학씨 제공〉

발표했다.

한국 산업재해 추방운동의 효시로 알려진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15살 소년의 수은중독 사망사건(1988년)을 시작으로 호남고속도로 공사에 참여, 현장 정리 중 차에 치여 습진 목포공고 현장실습생 사건(1997년),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않고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을 하다 추락사한 광주 송신공고 현장실습생 사건(2005년), 기아차 광주공장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하루 10시간 이상 유해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다 쓰러진 사건(2011년), 울산신항만공사 협력업체에 현장실습생으로 참여했다가 폭풍우로 인한 대피 명령에도 업체측이 철수를 미루면서 작업선에 남아있다가 전복되면서 습진 순천효산고 현장실습생 사건(2012년) 등 사고가 잇따랐다는 게 이규학 전남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의 분석이다.

이 감사관이 이날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열거한 현장

실습 잔혹사 〈표〉는 안전사고에도 무감각한 교육당국, 산업 현장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엮여있다. '사고 발생→제도 강화→제도 완화→사고 발생'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감사관 지적이다.

이 감사관은 취업률에 목 맨 정부의 느슨한 정책도 꼬집었다. 학생들을 기업 수요에 맞게 '학습 근로자'로 만드는가 하면, 현장실습 가능한 업체를 '선도기업'에서 '참여형 기업'까지 허용하는 등 학습형 현장실습업체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고(故) 이민호군 아버지로 노동 안전과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영씨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교육부가 학생 안전보다 취업률에 집중하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실습을 전담하는 전문 취업 지도사를 전문 상담교사처럼 확보하지 못하고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홍군 사고와 관련, 학교측은 취업전담교사 등의 부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이 하면 안되는 잠수 업무를 취급하는 업체를 현장실습기업 적합 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홍군 사고 조사 결과도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교육청과 학교는 각종 평가에 반영되는 취업률을 감안,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나 사업주 1명 뿐인 소규모 영세업체에도 현장실습을 보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근로감독관은 실습기업 정보를 몰랐으며 관리대상 기업이 많아 1인 영세업체는 아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였다는 게 권익위 발표다.

당사자들인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불안감도 드러났다. 이날 직업계고 학생으로 토론자로 나선 학생은 "현장실습에 나가기 전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한다"고 했다. "실습장에 있는 어른들은 저희를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하러 온 어른으로 본다", "실습장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곳인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토론자로 나선던 여수해양과학 최성현군은 "취업 전 현장을 알고 직접 경험해보는 일은 소중한 기회"라며 "어려운 것을 바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과 학습권과 보장되는 실습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홍군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 남아있는 어른들이 해야 할 책무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계엄군이 쏜 총탄에 척추 다쳐 하반신 마비 평생 극심한 고통 시달리다 안타까운 죽음

5·18 유공자 이광영씨

"형님의 인생은 1980년 5월 18일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날 입은 총상으로 평생을 장애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24일 오후 2시에 찾은 광주시 북구 우산동 구호전 장례식장. 5·18 유공자 이광영(68)씨 빈소에서 만난 유가족들 표정엔 비통함이 가득했다.

이씨는 지난 23일 강진군 군동면 한 저수지에서 습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자택인 전북 익산시를 떠나 밤 11시15분께 저수지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곳은 이씨가 10대 유년시절을 보낸 곳으로, 고향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

이씨가 자택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라는 제목의 A4 한장 짜리 유서에는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힘들고 괴롭다. 5·18에 대한 원한, 서운함을 모두 잊겠다. 가족에게 고맙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씨의 남동생은 전했다.

이씨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이자, 부상자회 회원으로 5·18 당시 조계중의 한 사찰 승려였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앞두고 광주에 왔다가 계엄군의 진압이 시작되면서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진 환자 이송에 동참했다. 이씨 또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다.

5·18로 삶이 바뀐 이씨는 진실을 알리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는 헬기 사격을 직접 증언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1988년 국회 광주 특위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조사, 2019년 5월 13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1980년 5월 21일 오후 광주시 남구 월산동 로터리에서 백운동 고개 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으며 헬기 사격으로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여학생을 구조해 적십자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5·18로 인한 후유증은 그를 더욱 힘들게 했다.

이씨 남동생은 "형님은 최근 통증이 심해져 병원



24일 오후께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광영씨의 빈소. 영정사진 속 이씨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두 차례나 기절했었고 이렇게 더 못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형님이 차량을 맡겨놓은 정비소에서 차를 타고 나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걱정이 돼 전화를 계속 했는데 받지 않았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 집에 갔는데, 유서를 놓고 가셨다. 급히 찾아 나섰지만 이렇게 됐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이씨는 이날 초에도 5·18부상자회 사무실을 찾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위한 서류를 챙겨 갔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밤 단독주택 화재로 70대 숨져

지난 23일 밤 11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풍향동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날 사고로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73)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A씨는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홀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거실에서 가스 버너를 사용했다는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음주운전 2명 숨지게 한 40대 구속

광양경찰은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광주일보 11월 18일 6면)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 50분께 광양시 초남터널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B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에 타고 있던 C(68)씨와 D(59)씨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